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제3자 경어 사용 양상에 관한 연구

사카모토 유키카* 김은호**

-차 례-

1. 서론
2. 선행 연구
3. 연구 대상 및 방법
4.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제3자 경어 사용 양상
   4.1. 장면별 제3자 경어 평균 사용률
   4.2. 가족언급 장면에서의 제3자 경어 사용 양상
   4.3. 아르바이트 장면에서의 제3자 경어 사용 양상
   4.4. 일상생활 장면에서의 제3자 경어 사용 양상
5. 결론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 handsup330@gmail.com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eunhokim@cau.ac.kr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제3자 경어 사용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인 대상 한국어 경어 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을 두고 있다. 일본인 학습자의 제3자 경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에 거주하며 대학교(원)에 재학 중인 일본인 유학생 4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인터뷰를 통해 제3자 경어 사용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제3자 경어 사용에 관하여 이하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일본인 유학생은 한국어 모어화자와 비교하면 제3자 경어 사용률이 상당히 떨어진다. 둘째, 비격식체 사용 상황보다 격식체 사용 상황에서 제3자 경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비격식체 사용 상황에서 '-아/어 주다'를 사용하였지만 격식체 사용 상황에서는 '-아/어 주시다'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제3자가 화자와 같은 조직에 속하고 제3자보다 더 높여야 할 상대가 청자인 경우에 한국어 사용에 있어서 일본어 경어 특징의 전이가 일어났다. 다섯째, 제3자의 말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상황에서는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라셔'를 사용하지 않고 '-래'를 사용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제3자 경어 사용양상을 살피고 그 특징을 고찰하여 일본인 대상 한국어 경어 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 제3자 경어, 격식체, 비격식체, 공손성, 한국어 경어 교육

1. 서론

한국어와 일본어는 기본어순, 시제의 구분, 지시어의 체계, 경어의 발달 등 그 유사성이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범주에 걸쳐 미묘하면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 또한 당연한 현상이며 이러한 차이점은 한국어 일본인 학습자 혹은 일본어 한국인 학습자에게 어려움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본 연구는 두 언어의 '경어'에서의 차이에 주목하여 한국어를 학습하는 일본인 학습자의 제3자 경어 사용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경어가 발달하였지만 일본어는 상대적 경어체계를 보인다면 한국어는 절대적 경어체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립된다(안증환, 2004). 경어는 '높임말', '존댓말'이라고도 불리며,[1] '상대에 대하여 공경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말. 또는 그러한 말투.'를 의미한다(고려대한국어대사전). 일본어의 '敬語(경어)'는 디지털 다이지센에 따르면 '話し手または書き手が相手や話題の人物に対して敬意を表す言語表現。'('말하는 이 혹은 쓰는 이가 상대나 주제의 인물에 대하여 경의를 나타내는 언어표현')[2]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처럼 한국어와 일본어의 경어는 개념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고 해도 무방하며, 상하관계 혹은 유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각 언어의 경어 운용법을 살펴보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어는 상대적 경어체계를, 한국어를 절대적 경어체계를 보인다. 한국어의 경어는 화제가 되는 인물(제3자)과 화자의 관계만을 고려하고 그 외의 관점이 감안되지 않는 반면, 일본어 경어는 화제가 되는 인물과 화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화자와 청자의 관계, 혹은 화자, 청자, 화제가 되는 인물의 3자 관계가 관여된다(白同善, 1993). 또한, 한국어의 경우, 경어를 선택할 시에 유대보다 상하관계에 치중하기 때문에 혈연(血

1 본고에서는 '경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겠다.
2 연구자 번역.

緣)관계가 있건 없건 상대가 자신보다 상위자일 경우에는 경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반면 일본어는 경어 설정 요인이 상하관계보다 유대에 더 치중하므로 비록 상대가 자신보다 상위자이더라도 친밀도가 높을 경우, 경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유완영, 2013).[3]

제3자 경어의 제3자란, 화자와 청자 간에서 화제가 되는 인물을 의미한다. 제3자 경어의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예문을 보자.

(1) (사원이 고객에게) 사장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
(2) (사원이 고객에게) 社長は今おりません。(사장은 지금 없습니다.)
(白同善, 1993, pp.198)

(1)에서 화자는 사원이며, 청자는 고객이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 화제가 되는 인물이 '사장님'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3자는 '사장님'이며, 제3자에게 존경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접미사 '-님'과 '있다'의 존경어 동사 '계시다'가 제3자 경어이다. 일본어 (2)의 경우, 사원은 '社長'에 존경을 나타내는 접미사를 사용하지 않으며, 서술어에서도 존경어 'いらっしゃる'는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사장을 낮추는 겸양어 'おる'를 사용한다.

이러한 경어 운용상의 차이는 두 언어를 학습하는 한국인 혹은 일본인에게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어 모어화자가 일본어에 한국어의 경어 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과도한 공손성을 띄게 되는 정도의 오류임에 반해 일본어 모어화자가 한국어 사용에 일본어 경어의 특

3 이 차이점에 대하여 金順任(2005a)는 일본어 모어화자들은 청자가 화자와 동등한 관계 혹은 하위자의 경우에는 제3자 경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에 비해 한국어 모어화자들은 같은 상황에서 제3자 경어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일본어 화자들은 상대를 높임과 동시에 제3자를 높이는 경향이 있으나, 한국어 화자들은 상대 높임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3자 높임을 사용함을 밝혔다. 예를 들어 제3자가 '과장'이고 청자가 화자보다 하위자인 경우 한국어와 일본어의 경어 사용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가. 일본어: 課長はいないよ。(과장은 없어.)
나. 한국어: 과장님은 안 계셔.

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학습자의 체면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李澤熊, 2011). 이러한 중요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어 경어 습득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경어 습득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제3자 경어 사용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인 대상 한국어 경어 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한국어와 일본어의 제3자 경어에 관한 연구는 주로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우메다(1989)는 수수(授受)동사에 초점을 둔 연구로, 제3자를 학장, 선생님, 부친, 상급생, 동급생으로 설정하고, 청자가 선생님인 경우와 친구인 경우로 나누어 한국어와 일본어의 경어 사용 상황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일본어는 제3자가 누구인가보다는 청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일본어는 청자가 선생님일 경우에는 경어를 많이 사용한 반면 청자가 친구일 경우에는 제3자가 누구든 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金順任(2005a)는 한국인과 일본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일본어의 제3자 경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자를 높이는 비율은 두 언어 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제3자를 높이는 비율은 일본어 11%, 한국어 46%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어와 일본어의 제3자 경어 사용 양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金順任(2005b)은 한국과 일본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일본어의 제3자 경어 운용 구조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일본어 모어화자들은 청자가 화자와 동등한 관계 혹은 아랫사람인 경우에는 제3자 경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한국어 모어화자들은 제3자 경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어 화자들은 상대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제3자를 높이는 경향이 있으나, 한국어 화자들은 상대 높임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3자 높임을 사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시야마 테츠야(2007)는 한국어의 압존법과 일본어의 경어 억제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일본어의 경어운용의 대조를 통해 두 언어의 차이점을 논하였다. 한국어는 청자와 다른 사회집단에 속하는 화제의 인물이 화자보다 손윗사람이면 보통 높이는 규칙이 있는 반면, 일본어는 제3자를 청자 입장에서 보아 높일지 안 높일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제3자 경어 사용에 대해서는 하세가와 유키코(2011)가 일상생활 속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와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는 일본 내 한국어 학습자 40명을 대상으로 어떤 특정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하는 말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경어 사용에 있어서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언급할 때 경어를 사용하고 가족 언급 상황에서 존경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언어문화에 기인한 오류로 판정하고 한국어문화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전의 한국어와 일본어의 제3자 경어에 관한 연구들은 두 언어의 대조를 통해 언어형식에서 사회언어학적 요인에 대한 내용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제3자 경어 사용양상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두 언어 간 차이점을 밝히는 대조언어학적 연구에서 나아가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제3자 경어의 사용 양상을 고찰하여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제3자 경어의 교수학습에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제3자 경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

기 위하여 한국에 거주하며 대학교(원)에 재학 중인 일본인 유학생 4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의 개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네이버폼을 사용하여, 참여자의 한국어 학습 기간, 한국 거주 기간, 어학당에서의 학습 경험 유무, 한국어 숙달도(TOPIK 점수)를 설문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20대 여성[4]이며 한국어 경어에 대한 학습과 사용을 이미 경험한 TOPIK 6급의 고급 학습자이다. 연구 참여자별 구체적 정보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가급적 자연 발화와 유사한 발화를 얻기 위하여 인터뷰 형식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고는 金順任(2005a)가 일본어의 제3자 경어 운용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인터뷰 질문(표 1)을 본 연구의 목적에 알맞게 수정, 보완하여 자료 수집의 도구로 삼았다.

[표 1] 金順任(2005a)에서 사용한 인터뷰 질문

장면	제3자	듣는 이	설정한 질문
가족 언급	아버지	부하 (親/疎) 동료 (親/疎) 상사 (親/疎)	당신이 차고 있는 시계를 보고 회사 사람이 시계가 멋지다, 어디서 샀냐고 당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여행을 가서 사 왔다는 내용을 말하고 싶을 때 한국어로 어떻게 말합니까?
근무 중	과장	부하 (親/疎) 동료 (親/疎) 부장 (親/疎) 타부서 과장 (親/疎) 외부 방문객	근무 중입니다. 당신은 과장님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과장님은 없다는 내용을 말하고 싶을 때 한국어로 어떻게 말합니까?
근무 시간 외	상사	부하 (親/疎) 동료 (親/疎) 상사의 동료 (親/疎) 상사의 상사 (親/疎)	점심 시간에 근처 편의점에 있을 때 우연히 같이 일하는 사람과 만났습니다. 당신이 이번에 임시 보너스가 지급된다고 이야기했더니 상대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당신이

4 경어의 사용양상은 성별이 유의미한 변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본고의 연구 참여자는 여성으로 한정하였다. 일례로 荻野 등(1990)은 일본과 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어 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일본어와 한국어의 청자 높임법 사용양상을 비교하였는데 두 언어의 경어 사용에 있어서 유의미한 남녀차이가 확인되었다.

	연하인 상사	부하 (親/疎) 동료 (親/疎) 상사 (親/疎)	○○(제3자)가 알려줬다고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연상인 부하	부하(親/疎) 동료 (親/疎) 상사 (親/疎)	

金順任(2005a)는 위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제3자 경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상황, 대화 상대, 제3자를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 자료 수집의 기반으로 삼았다. 다만, 金順任(2005a)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이므로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원)생에 적합하도록 질문을 수정하였으며 보다 풍부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한 장면 당 세 개의 질문을 설정하였다. 수정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金順任(2005a)와 본 연구의 수정 내용 비교표

	金順任(2005a)	본 연구
듣는 이	상사, 동료, 부하	선배, 동기, 후배
장면	근무 중, 근무 시간 외	아르바이트 중, 일상생활
제3자	과장	사장
근무 시간 외 제3자	상사, 연하 상사, 연상 부하	선배

먼저, 참여자들이 학생인 것을 감안하여 '상사'나 '동료', '부하'를 '선배', '동기', '후배'로 변경하였다. 또한 '근무 중', '근무 시간 외'라는 장면 역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거나 상상이 용이한 '아르바이트 중'과 '일상생활'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과장'도 '사장'으로 변경하여 아르바이트 상황과 가까운 상황 설정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무 시간 외'의 제3자를 '상사, 연하인 상사, 연상인 부하'였던 것을 연구 참여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배'만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金順任(2005a)는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한국인과 일본인이 각 언어로 제3자 경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발화자가 나이와 사회적 지위 중 어느 쪽을 더 중요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하인 상사'와 '연상인 부하'라는 상대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조가 아닌,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일반적으로 높여야 하는 제3자를 언급할 때의 경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그 대상을 '선배'로 한정하였다. 위의 내용을 반영한 장면, 제3자와 청자를 고려하여 설정한 인터뷰 질문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인터뷰 질문(한국어판)

장면	제3자	듣는 이	설정한 질문
가족 언급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후배 동기 (친구) 선배	1. 당신이 차고 있는 시계를 보고 회사 사람이 시계가 멋지다, 어디서 샀냐고 당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여행을 가서 사 왔다는 내용을 말하고 싶을 때 한국어로 어떻게 말합니까? 2. 당신이 먹고 있는 도시락을 보고 당신이 직접 쌌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쌌다는 내용을 말하고 싶을 때 한국어로 어떻게 말합니까? 3. 상대가 요즘 자신의 할아버지 몸이 안 좋다고 하면서 당신의 할아버지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건강하다는 내용을 말하고 싶을 때 한국어로 어떻게 말합니까?
아르바이트 중	사장	후배 동기 (친구) 고객	1.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당신은 손님에게서 사장님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없다는 내용을 말하고 싶을 때 한국어로 어떻게 말합니까? 2. 당신은 사장님을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당신에게 5분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상대에게 말하고 싶을 때 한국어로 어떻게 말

			합니까? 3. 가게에 있는 기계가 고장났는데 언제 복구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내일 수리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말하고 싶을 때 한국어로 어떻게 말합니까?
일상 생활	선배	후배 동기 (친구) 선배의 동료	1. 휴식 시간에 근처 편의점에 있을 때 우연히 같이 일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당신이 이번에 임시 시급이 오른다고 이야기했더니 상대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당신이 선배 B가 알려주었다는 내용을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2. 휴식 시간에 길 가다가 우연히 같이 일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상대가 당신에게 지금 가게에 누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선배B(제3자)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말하고 싶을 때 한국어로 어떻게 말합니까? 3. 어느 날, 수업에 선배 B가 결석했습니다. 상대가 선배 B가 왜 결석했는지 아냐고 물었을 때 선배 B는 감기에 걸렸다는 내용을 말하고 싶을 때 한국어로 어떻게 말합니까?

위의 질문을 바탕으로 진행된 경어 사용 양상 자료의 수집을 위한 인터뷰에서는 연구자가 PPT 슬라이드 1장에 질문 1개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제시하였으며 연구자가 해당 질문을 읽으면 연구 참여자가 한국어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때 시간제한은 따로 두지 않았으며 연구 참가자의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발화하도록 하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인 줌(Zoom)을 사용한 비대면 인터뷰로 2021년 9월 19일부터 10월 6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대략 10분 내외로 진행되었으며 40명의 참여자 모두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약 7시간이 소요되었다. 본고에서 수집한 제3자 경어가 포함된 발화의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아빠가 여행 갔다가 사오셨어. (가족언급 장면 질문 1 / 청자: 후배)

(4) 할아버지는 잘 *있으셔(계셔). (가족언급 장면 질문 3 / 청자: 동기)

(5) 사장님이 5분만 *기다리셨으면라고(기다려달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장면 질문 2 / 청자: 고객)

(6) 선배님이 계실 거야. (일상생활생활 장면 질문 2 / 청자: 후배)

(3)~(6)에서 제시한 것처럼 자료 수집을 위한 인터뷰에서는 제3자 경어 사용에 있어서 오류를 포함한 다양한 표현이 출현하였으며 참여자마다 사용하는 어미도 다양하였다. 본 연구는 제3자 경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어미를 제외한 동사, 형용사로 제한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3)과 같이 원래 '계시다'를 사용해야 하는 발화에서 '있으시다'를 사용하는 참여자가 일부 존재하였는데 비문법적 표현에 해당하지만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함으로써 제3자를 높이려고 하였다는 참여자의 의도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3자 경어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4.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제3자 경어 사용 양상

4.1. 장면별 제3자 경어 평균 사용률

본 연구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제3자 경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먼저, 수집한 표현들을 토대로 제3자 경어를 사용한 참여자와 사용하지 않은 참여자의 비율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원어민 화자의 제3경어 사용률을 제시한 金順任(2005a)의 결과와 비교하여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제3자 경어 사용에 있어서 나타나는 경향과 특징

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장면별 평균 사용률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장면별 제3자 경어 평균 사용률

장면	청자	제3자 경어 사용률(%)
가족언급	후배	43.3(27.5)
	동기	42.5(28.7)
	선배	70.0(62.5)
아르바이트	후배	31.6
	동기	31.6
	손님	72.5
일상생활	후배	35.8
	동기	34.1
	선배	66.6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제3자 경어 사용률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모든 장면에서 비격식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3자 경어 사용률이 낮았고, 격식체를 사용할 때는 경어 사용 빈도가 높다는 점이다. 이 결과를 金順任(2005a)에서 제시된 한국어 모어화자의 제3자 경어 사용률과 비교하면[5]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경어 사용률이 모어화자에 비해 월등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고급 수준의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 경어 사용에 있어서는 한국어 모어화자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모두 제3자 경어를 사용한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낮은 제3자 경어 사용률은 한국어 경어에 대한 지식, 학습 부족 등 언어 외

5 金順任(2005a)의 모어화자 자료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자료와 비교하였다.

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한국어와 일본어의 경어에서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가족언급 장면의 경우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질문 3에서 매우 높은 경어 사용률이 나타났기 때문에 평균 수치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질문 3을 제외하고 질문 1,2 즉, 제3자가 아버지와 어머니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경어 사용률을 재산출하면 청자가 후배인 경우 27.5%, 동기인 경우 28.7%, 선배인 경우에는 62.5%로 세 가지 장면 중 경어 사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金順任(2005a)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일본인은 가족언급 장면에서 일본어로 아버지를 언급할 경우와 청자가 부하, 동료인 경우에는 제3자 경어 사용률이 0%로 나타났으며 상사인 경우에도 5% 미만의 경어 사용률을 보였다. 반면, 본 연구의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언급하는 비격식체 사용 상황에도 30% 가까운 사용률을 보였음을 주목하였다. 이는 일본인이 일본어 사용 시에는 제3자 경어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한국어 사용 시에는 제3자 경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의도적으로 한국어의 제3자 경어를 사용하는 학습자도 존재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모어화자의 제3자 경어 사용률에 비하여 학습자의 사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절에서는 장면별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제3경어 사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2. 가족언급 장면에서의 제3자 경어 사용 양상

아래 [표 5]는 가족언급 장면의 질문1(‘당신이 차고 있는 시계를 보고 회사 사람이 시계가 멋지다, 어디서 샀냐고 당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여행을 가서 사 왔다는 내용을 말하고 싶을 때 한국어로 어떻게 말합니까?’)의 응답으로 출현한 경어 표현을 사용한 참여자 수를 정리한 표이다.

[표 5] 가족언급 장면 질문 1에 대한 응답으로 출현한 표현 (단위: 명)

	사오다	사주시다	사주다	사오시다	주다	사와주시다	선물
후배	20	8	7	3	1	1	0
동기	20	8	6	3	0	1	2
선배	9	14	5	10	1	1	0

질문 1의 경우 청자가 후배, 동기 즉 비격식체를 사용하는 상대에게는 ‘사오다’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상대가 선배인 경우 즉 격식체 사용 상황에서는 ‘사주시다’, ‘사오시다’와 같이 ‘-시-’를 사용한 표현이 많이 출현하였다. ‘선물’은 ‘아빠 선물’, ‘선물이야.’와 같이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짧고 간결하게 정보를 전달한 것이며, 청자가 동기인 경우에만 나타난 표현이기 때문에 상대와의 친밀도가 영향을 주어 이러한 표현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격식체 사용 상황에서 참여자의 50%가 ‘사오다’를 사용하였는데 반면 격식체 사용 상황에서는 ‘사오다’에 ‘-시-’를 붙인 ‘사오시다’가 아닌 ‘사주시다’가 보다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단지 비격식체 상황에서 사용한 표현에 ‘-시-’를 붙인 것이 아니라 격식체 사용과 동시에 사용하는 동사를 바꾸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조동사 ‘-주다’를 첨가함으로써 청자에 대한 공손성을 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문금현, 2017).

이어서 질문 2(‘당신이 먹고 있는 도시락을 보고 당신이 직접 쌌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쌌다는 내용을 말하고 싶을 때 한국어로 어떻게 말합니까?’)의 결과를 보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가족언급 장면 질문 2에 대한 응답으로 출현한 표현 (단위: 명)

	만들다	만들어주다	만들어주시다	만드시다	싸주다
후배	14	8	8	3	2
동기	14	7	8	4	2
선배	5	3	15	10	2
	해주다	싸다	해주시다	싸주시다	엄마가
후배	2	1	0	0	2
동기	1	1	0	0	2
선배	2	0	2	1	0

[표 6]을 보면 질문 2에 대한 응답도 질문 1과 같이 비격식체 사용 상황에서는 '만들다'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격식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만들어주시다', '만드시다'와 같은 '-시-'를 사용한 표현이 많이 출현하였다. '엄마가'는 동사가 생략된 경우인데 이것 역시 격식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대 즉, 심적 거리가 가까운 상대에게 하는 발화였다는 점에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질문2도 질문1과 마찬가지로 비격식체에서는 '만들다'가 가장 많이 사용된 반면 격식체 사용 상황에서는 '만드시다'가 아닌 '만들어주시다'가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며, 여기서도 사용 동사의 변경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질문 3('상대가 요즘 자신의 할아버지 몸이 안 좋다고 하면서 당신의 할아버지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건강하다는 내용을 말하고 싶을 때 한국어로 어떻게 말합니까?')에 대한 응답을 통해 제3자 경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겠다.

[표 7] 가족언급 장면 질문 3에 대한 응답으로 출현한 표현 (단위: 명)

	계시다	건강하시다	지내시다	건강하다	괜찮으시다
후배	10	13	3	3	3
동기	10	13	2	3	2
선배	12	15	1	1	4
	있다	지내다	괜찮다	있으시다	문제가 없다
후배	2	2	2	1	1
동기	2	3	3	1	1
선배	3	1	0	2	1

질문 3에서는 질문 1, 2와는 달리 비격식체 사용 상황과 격식체 사용 상황과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모든 상황에서 '계시다', '건강하시다'와 같은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있으시다'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문법적으로 오류가 나타난 표현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화제가 되는 인물에게 존경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제3자 경어 사용으로 간주하였다.

4.3. 아르바이트 장면에서의 제3자 경어 사용 양상

아래 [표 8]은 아르바이트 장면 질문1에서 사용된 표현을 정리한 표이며, 질문 내용은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당신은 손님에게서 사장님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없다는 내용을 말하고 싶을 때 한국어로 어떻게 말합니까?'였다.

[표 8] 아르바이트 장면 질문 1에 대한 응답으로 출현한 표현 (단위: 명)

	없다	안 계시다	없으시다	비우시다	밖에 계시다
후배	24	14	2	0	0
동기	23	15	2	0	0
손님	8	26	4	1	1

아르바이트 장면 질문 1에서도 비격식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없다'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격식체 사용 상황에서는 '안 계시다'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아르바이트 장면은 다른 질문들과 달리 응답에서 나타난 제3자 경어 표현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고 '없다'와 '안 계시다'에 치중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질문 1의 경우 청자에 손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처음 만나는 손님을 상대하는 상황은 청자가 이미 아는 사람인 선배인 상황보다 격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비우시다'와 '밖에 계시다'라는 표현은 아르바이트생(화자)과 손님이라는 관계의 특성상 손님은 심적 거리를 최대치로 상정할 수 있는 처음 만나는 상대로, 발화자가 청자에게 공손성을 나타내기 위해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여 돌려 말한 간접 화법 전략의 일종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아래 [표 9]는 아르바이트 장면의 질문 2('당신은 사장님을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당신에게 5분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상대에게 말하고 싶을 때 한국어로 어떻게 말합니까?')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제3자 경어 표현 출현 양상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9] 아르바이트 장면 질문 2에 대한 응답으로 출현한 표현 (단위: 명)

	하다	기다리래	기다려달래	하시다	말하다	물어보시다	말하시다	말씀하시다	없다	일이있다	바쁘시다	오시다	여쭙다	기다릴수있어?
후배	15	11	5	5	3	0	0	0	0	0	0	0	0	1
동기	16	11	3	5	4	0	0	0	0	0	0	0	0	1
선배	5	2	0	21	2	1	1	1	1	1	1	1	1	2

비격식체 사용 상황에서는 ‘하다’, 격식체 사용 상황에서는 ‘하시다’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기다리래’, ‘기다려달래’와 같은 다른 사람에게 들은 어떤 사실을 상대에게 옮겨 전하는 뜻을 나타내는 인용의 종결어미 ‘-래’를 사용한 표현이 출현 빈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는 질문의 제3자의 말을 전달하는 상황으로 인해 나온 표현인데 종결어미는 ‘-라고 해’의 준말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경우 제3자 경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표현에 제3자 경어를 적용한다면 ‘-라셔’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래’를 사용했기 때문에 질문2에서 제3자 경어 사용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여쭙다’이다. ‘여쭙다’를 사용한 참여자는 한 명뿐이지만 20대 한국어 모어화자의 발화에서는 보기 드문 표현이다. 이는 청자가 손님이라는 절대적으로 높여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자신이 속하는 그룹 ‘내’에 있는 사장을 낮춘 것이며, 일본어 경어의 특징이 한국어에 전이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아르바이트 장면 질문 3(‘가게에 있는 기계가 고장 났는데 언제 복구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내일 수리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말하고 싶을 때 한국어로 어떻게 말합니까?’)에서 나타난 표현을 살펴

보면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아르바이트 장면 질문 3에 대한 응답으로 출현한 표현 (단위: 명)

	고치다	고쳐주시다	고치시다	하시다	하다	고쳐주다	얘기하다	수리하다
후배	17	9	4	4	3	2	1	0
동기	16	10	4	2	4	3	1	0
손님	7	12	5	12	3	0	0	1

질문 3에 대한 응답에서도 비격식체 사용 상황에서 '고치다'[6]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격식체 사용 상황에서는 '고쳐주시다'와 '하시다'가 가장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다. '하시다'와 '하다'는 '고친다고 했어', '고친다고 하셨어'와 같은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다.[7] '고치신다고 했어', '고친다고 하셨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3자 경어가 출현한 동사(전자는 '고치시다', 후자는 '하시다')로 분류하였다.

또 한 가지 언급할 점은 비격식체 사용 상황에서는 '하다'의 사용률이 낮았음에 비해 격식체 사용 상황에서는 12명이 '하시다'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손님에게 '고쳐주신대요', '고쳐준대요' 등의 준말을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비격식체 사용 상황에서는 청자가 후배일 때 준말을 사용한 참여자는 21명, 청자가 동기의 경우에는 22명이었던 반면 청자가 손님의 경우 5명이었으며 준말을 사용하는 참여자

6 질문 2에서도 '고쳐준대'와 같은 들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접미사 '-대'를 사용한 표현이 출현하였다. 질문 1과는 달리 '고쳐주신대'처럼 동사에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시-'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질문 2에서는 '고쳐준대'로 하지 않고 '고쳐주다'와 '고치시다'로 정리하였다.

7 '고치신다고 했어', '고친다고 하셨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3자 경어가 출현한 동사(전자는 '고치시다', 후자는 '하시다')로 분류하였다.

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4.4. 일상생활 장면에서의 제3자 경어 사용 양상

아래 [표 11]은 일상생활 장면의 질문1('어느 날, 우연히 같이 일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당신이 이번에 시급이 오른다고 이야기했더니 상대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당신이 선배 B가 알려주었다는 내용을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에서 출현한 표현들이다.

[표 11] 일상생활 장면 질문 1에 대한 응답으로 출현한 표현 (단위: 명)

	알려 주다	알려 주시다	가르쳐 주다	가르쳐 주시다	말하다	그렇다	하다	그러시다	듣다
후배	21	13	2	2	1	0	1	0	1
동기	20	13	2	2	0	1	0	0	2
선배	5	28	1	2	0	0	0	1	3

이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다른 질문에 대한 응답들과 마찬가지로 비격식체 사용 상황에서는 존경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 '알려주다'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격식체 사용 상황에서는 존경의 뜻이 나타나는 '-시-'를 첨가한 '알려주시다'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상생활 장면의 질문 2는 '어느 날, 우연히 같이 일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상대가 당신에게 지금 가게에 누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선배 B(제3자)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말하고 싶을 때 한국어로 어떻게 말합니까?'였으며, 응답자들의 제3자 경어 사용 양상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일상생활 장면 질문 2에 대한 응답으로 출현한 표현 (단위: 명)

	있다	계시다	있으시다
후배	28	11	1
동기	28	11	1
선배	17	23	0

이 질문 역시 비격식체 사용 상황에서는 '있다'가 자주 나타났고 격식체 사용 상황에서는 '계시다'의 사용 빈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상생활 장면에서의 마지막으로 질문 3('어느 날, 수업에 선배 B가 결석했습니다. 상대가 선배 B가 왜 결석했는지 아냐고 물었을 때 선배 B는 감기에 걸렸다는 내용을 말하고 싶을 때 한국어로 어떻게 말합니까?')에 대한 응답에서 나타난 제3자 경어 표현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일상생활 장면 질문 3에 대한 응답으로 출현한 표현 (단위: 명)

	걸리다	걸리시다	아프다	아프시다	감기래	하시다	안 나온다며	듣다
후배	22	15	1	1	1	0	0	0
동기	22	13	2	1	1	0	1	0
선배	12	22	1	2	0	2	0	1

이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비격식체 사용 상황에서는 '걸리다', 격식체 사용 상황에서는 '걸리시다'[8]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여기까지 장면별로 제3자 경어 사용양상을 살펴보았다. 모든 장면에서 비격식체 사용 상황보다 격식체 사용 상황에서 선어말어미 '-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8 인터뷰에서는 '*걸려셨대요'와 같은 오류가 4명의 발화에서 확인되었으나 해당 오류의 경우 본 연구의 논점에서 벗어나므로 '걸리시다'로 간주하였다.

있었다. 또한 비격식체 사용 상황에서 '-아/어 주다'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격식체 사용 상황에서는 '-아/어 주시다'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격식체 사용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표현을 기피하고 간접적인 표현으로 돌려 말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손님과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 상대에 대한 공손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의 제3자 경어 사용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인 대상 한국어 경어 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내 대학교, 대학원에서 유학 중인 일본인 4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여 그들의 제3자 경어 사용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제3자 경어 사용에 관하여 이하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일본인 유학생은 한국어 모어화자와 비교하면 제3자 경어 사용률이 상당히 떨어진다. 일본인 학습자들의 사용률은 거의 모든 장면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비격식체 사용 상황에서는 제3자 경어 사용률이 30% 내외에 머물렀다. 둘째, 비격식체 사용 상황보다 격식체 사용 상황에서 제3자 경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비격식체 사용 상황에서 '-아/어 주다'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격식체 사용 상황에서는 '-아/어 주시다'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인 학습자들은 비격식체 사용 상황에서 사용한 본동사를 격식체 상황에서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보조동사 '-아/어 주다'를 첨가하여 제3자 경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아르바이트 장면에서 청자가 손님일 경우 일본어 경어가 가진 특징의 전이가 나타날 수 있다. 제3자가 화

자와 같은 조직에 속하고 제3자보다 더 높여야 할 상대가 청자일 경우에 겸양어를 사용한 것이다. 다섯째, 제3자의 말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상황에서는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라셔'를 사용하지 않고 '-래'를 사용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제3자 경어 사용양상을 살피고 그 특징을 고찰하여 일본인 대상 한국어 경어 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일본인 대상 한국어 경어 교육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구 자료와 연구 방법을 통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효과적인 한국어 제3자 경어법 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 Study on the Aspects of Use of Korean Honorifics toward the third person by Japanese Learners

Yukika Sakamoto(Chung-Ang University)
Kim, Eunho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education of Korean honorifics for Japanese by examining the third-party honorific use patterns of Japanese Korean learners. In order to examine the patterns of use of third-party honorifics by Japanese learners, 40 Japanese international students living in Korea and attending universities (won) were selected as the research subjects, and data on the use of third-party honorific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rough interviews.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fin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regarding the use of third-party honorifics by Japanese Korean learners. First, compared to native Korean speakers, Japanese students use third-party honorifics significantly lower. Second, there is a tendency to use third-party honorifics more in formal situations than in informal situations. Third, although '-ah/uh give' is not used in informal situations, there is a tendency to use '-ah/uh give' in formal situations. Fourth, when the third person belongs to the same organization as the speaker and the person who needs to be higher than the third person is the listener, the transfer of Japanese honorific features occurred. Fifth, a tendency was found to use '-rae' instead of '-rasher', which indicates respect, in a situation where a third party's words are conveyed to the listene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for Japanese by examining the third-party honorific language usage patterns of Japanese Korean learners, who have not received much attention so far, and examining their characteristics.

KeyWords: Third-party honorifics, Japanese Korean language learners, formal speech, informal speech, politeness, Korean honorifics education

[참고문헌]

■ 논문

문금현,「한국어 공손성 표현의 생성 유형별 특징-공손성의 강도와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국어학 (國語學), 82, 2017, 27-66면.

안증환,「문화적 차이에 근거한 한국어와 일본어의 상대적 언어유형」,『日本語教育』, 일본어교육학회, 29, 2004, 17-43면.

우메다 히로유키,「경어에 관한 한일 대조 연구」,『일본학지』,60, 1989, 95-102면.

유완영,「현대 한국어 경어법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중국어 및 일본어 경어법과의 비교를 통하여」,『이화어문논집』 31, 2013, 105-131면.

이시야 마테츠야,「한일 경어운용에 관한 일고찰」,『日本學研究』, 20, 2007, 411-432면.

하세가와 유키코,「일본에서의 한국언어문화교육 방안」,『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1년 추계 학술대회』, 2011, 187-194면.

荻野 綱男 [他]. 日本語と韓国語の聞き手に対する敬語用法の比較対照. 朝鮮學報, 1990 pp.1-51.

金順任. 日本語と韓国語の第三者敬語の対照研究. 博士学位論文, 東京外国語大学, 2005a.

金順任. 日韓の社会人における第三者敬語の対照研究 -アンケート調査の結果から-. 日本語科学, 18, 2005b, pp.95-110.

白同善. 絶対敬語と相対敬語 : 日韓敬語法の比較. 世界の日本語教育 : 日本語教育論集. (3), 1993, pp.195-207.

李澤熊. 日本人韓国語学習者のための日韓対照言語研究. 愛知学院大学語研紀要. 36(1), 2011, pp.171-190.

林炫情, 玉岡賀津雄, 宮岡弥生. 本語と韓国語の第三者待遇表現 : 聞き手の違いが他称詞と述語待遇選択に及ぼす影響. 山口県立大学学術情報(1), 2008, pp.56-70.

접수일: 2022.04.16. 총평일: 2022.04.29. 게재확정: 2022.04.30.